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11. 18.(월)</b> <b>총 3매(본문2)</b>	
<b>담당 부서</b>	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	<b>담당 자</b>	• 과장 김영현, 사무관 이재덕 • ☎ (044) 201-4546, 4564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11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19일 심포지엄서 해안·내륙권 경제발전 머리 맞댄다

-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 계기 발전정책 방향 논의
-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, 국가관광도로 지정·운영 방안 등 모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1월 19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‘해안 및 내륙권의 효율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발전정책 방안’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

-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(‘20→’30)에 맞추어 특별법 취지 실현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실효성 있는 발전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,
- 해안내륙권의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 추진 사례, 지역 간 연계협력형 실행계획, 국가관광도로 법제화 방안 연구성과 등을 공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.

- 먼저, 해안내륙권의 6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간 협의회 운영, 공동용역 추진방안 등 행정절차 진행사항, 연구용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소 대책, 예상되는 주요 쟁점 현안 등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된다.

- 또한, 지역별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실행계획 중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 (종합계획) 수립’ 연구 사례,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‘근대시민정신과 함께하는 체험학습벨트 조성’ 방안 연구 추진사례를 발표한다.
  - 둘째, 우수한 해안경관 등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·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관광도로의 지정·관리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.
  - 이어서,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변경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하여 발전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, 관련 지자체간 연계협력 기반의 광역적 발전방안, 국가관광도로의 지정 관리 방안 등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.
  - 이번 심포지엄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응하여 발전 정책의 재도약 발판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, 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별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박대순 기획관은 “오늘 심포지엄이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
- “실행력 높은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해안내륙권이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국제 관광지역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박창순 사무관(☎ 044-201-455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